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매체 : 농민신문(2024. 3. 22.)

○ 제목 : 일손부족 고령·영세농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용하세요

### 일손부족 고령·영세농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용하세요



“최근 수술을 받아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일손을 지원 받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경기 고양에서 열갈이배추를 시설재배하고 있는 김모씨(75)는 “정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고령농이나 영세농에 일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했는데 뜻밖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 일손부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승욱)로부터 사회봉사자들을 배정받아 13~14일 이틀간 열갈이배추를 모두 수확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김씨를 포함해 3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19일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열갈이배추와 쪽파 수확, 비닐하우스 설치·철거 작업 등을 했다.

법무부가 201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나 영세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 지역 보호관찰소에 인력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사회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의 경우 영세·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일손과 농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선 목욕과 이·미용, 빨래, 연탄·김장배달 등을 하고 있다. 또 집수리와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정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주무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나 영세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이용하면 일손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